

위험관리제도의 향후 전망과 손해보험업계의 과제



손영기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상무이사

1. 머리말

최근 국내보험시장은 개방화, 국제화의 진전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산으로 국제동조화 현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위험관리제도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수준의 위험관리역량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1973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최초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었고, 손해보험업계에 위험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은 1980년대 초이며, 1980년대 중반부터 각 손해보험사는 위험관리조직을 구성하여 보험과 위험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는 물론 언더라이팅 기능의 선진화 등을 통한 보험회사의 합리적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해외 선진위험관리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한 국내 위험관리제도의 발전방향과 손해보험업계의 대응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해외 선진위험관리제도

가. 유럽

일반적으로 유럽을 비롯한 보험선진국가에서의 위험관리조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각 보험회사 내에 위험관리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독립대리점이나 브로커영업이 활발한 보험시장의 특성에 따

라 상당수의 대형 브로커시는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조직을 갖추어 보험회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보험회사 또는 브로커사의 자회사 형태의 위험관리 전문회사도 상당수 존재하고, 이외에도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많은 개인 프리랜서들이 활동 중이다.

국내 위험관리조직에서 실시하는 추정 보험가액 평가는 대부분 독립된 감정평가회사에서 수행한다. 또한 우리의 한국화재보험협회와 같이 독일에는 손해보험업자가 설립한 위험관리 전문기관인 Vds(Verband der Schadenversicherer e. V.)가 있고, 영국의 LPC(Loss Prevention Council), 즉 영국손실방지위원회는 1889년 영국화재보험위원회(Fire Office Committee)가 세계 최초로 설립한 위험관리 기관이다.

이처럼 다양한 위험관리조직은 근본적으로 기업 경영자의 위험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하게 각인되면서 성장하여 왔다. 기업의 위험관리자가 부각되면서 독립적인 위험관리컨설팅 회사가 성장하였고, 보험시장의 경우 보험회사 및 브로커회사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험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발전하였다.

이들의 서비스는 재물보호에서 배상책임위험, 환경오염, 건강과 안전, 생명공학, 기업연금관리책임, 사이버거래상의 위험, 컴퓨터 소프트웨어, 신용위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전략적 위험관리와 회계 서비스, 그리고 위험 프로파일링 등 좀더 높은 단계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러한 위험관리자의 대부분은 20~30년 이상의 오랜 산업현장의 근무경력을 갖추고, 보험시장의 위험관리자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나. 미국

미국도 유럽과 같이 재보험사와 브로커시를 중심으로 한 위험관리업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는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RIMS(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ciety, Inc) 및 ISO(Insurance Service Office, Inc) 등이 있다.

ISO는 손해보험에 관련한 보험통계, 언더라이팅 및 손해사정 정보, 보험계리 분석자료, 보험약관, 컨설팅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원래 손해보험 효율산정기관이었던 ISO는 1997년 1월부터는 언더라이팅 Survey기관인 CRS(Commercial Risk Service)를 흡수, 통합하여 위험관리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조직 및 수행업무를 살펴보면 유럽과 비슷하며, 대형보험회사는 예외 없이 위험관리업무를 활성화하고 있다. 대부분 Risk Control과 Risk Financing을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Loss Prevention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는 대형공장물건의 HPR보험을 취급하는 FM Global, Kemper Insurance Co, HSB, GE GAP 등이다.

다. 일본

일본은 보험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오래되었지만 전문적인 위험관리업무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주로 대형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부서를 두었으며, 1990년 후반부터는 대부분 자회사로 독립하였다. 각 회사의 위험관리직원은 약 50~60여명 정도이다. 주로 모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유료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하나,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조직을 선진화하고, 과학적인 언더라이팅으로 기법을 전문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위험관리 업무영역을 배상책임 등으로 확대하고 그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기타 다양한 기업고객의 수요에 맞는 위험관리영역과 비즈니스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전통적인 재물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업무에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자연재해의 위험분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재·폭발 및 기업휴지 위험분석
- 자연재해(지진) 위험분석
- 제조물책임(PL) 위험분석
- 식중독 위험분석
- 의료안전 위험분석
- 개호(Health Care)사고 위험분석
- 노동재해, 환경 위험분석
- ISO14001컨설팅 업무
- 보일러 및 발전설비 안전관리심사
- IT Securities 위험분석
- 보험가액평가 등 감정업무
- 위험관리시스템(RMS) 구축 컨설팅

3. 국내 손해보험회사 위험관리제도의 발전방향과 과제

이상에서 살펴 본 해외 위험관리제도와 비교하여 국내 위험관리제도의 발전방향과 손해보험업계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위험관리조직의 선진화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 보았듯이 국내에서도 보험

회사와 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변화는 위험관리업무의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위험관리조직이 생성될 것으로 예측되며, 손해보험회사도 아래와 같은 선진위험관리조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대고객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독립된 위험관리전문회사

현재 손해보험회사 내의 위험관리조직은 당분간 현재의 조직을 유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미국,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미 보편화 되었듯이 보험회사의 자회사 또는 독립된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아웃소싱이 일반화되고 있고, 손해보험사도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험관리조직도 위험관리 본연의 전문영역을 강화할 수 있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일 것이다.

(2)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지원조직

물론 손해보험회사 내에서 위험관리의 역할도 한층 향상될 것이다. 방카슈랑스, 가격자유화 등 보험시장의 자율과 개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심화로 언더라이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고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영업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관리조직이 대형물건 또는 특수위험이나 신종위험에 대하여 언더라이터로서 역할을 수

행하거나, 중요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브로커회사의 위험관리

국내에서 활동중인 일부 브로커사에서는 이미 손해보험사의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기업보험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위험관리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해외 위험관리조직의 국내 진출도 늘어날 것이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브로커사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업무범위 영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면에서는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해외 위험관리조직에 뒤지지 않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4) 기업의 위험관리조직

국내 기업의 위험관리조직이 보험업무를 취급하게 되어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업무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고, 기업의 이러한 변화는 위험관리수요를 한층 촉발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위험관리조직의 선진화는 필수이다.

나. 위험관리 업무영역의 확대

지금까지 국내 손해보험사의 위험관리업무는 주로 화재, 풍수재 위험 등 재물보험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 생산물배상책임위험으로 그 영역을 확대 중에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위험관리 업무영역의 대폭적인 확대가 불가피 할 것이다.

(1) 기존 재물보험 위험관리의 확대

현재 실시되는 재물보험의 위험관리는 현장위험 조사를 통한 요율산출 자료수집,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파악, 보험가액평가 등의 보험계약 관련업무와 기초적인 방재사항 점검 등이다. 여기에 건설공사, 조립공사 등 기술보험에 대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종합보험 가입이 일반화됨에 따라 화재 및 풍수재위험 등 개별위험에 대한 위험진단에서 기업휴지위험, 기계·전기적 위험, 보일러 및 발전설비 안전심사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재무(Risk Financing)에 대한 기업의 관심 증가로 위험관리업무가 종합컨설팅(Total Consulting)으로 확대될 것이다.

(2) 배상책임 위험관리의 다각화

경제의 선진화와 국민의식수준의 합리화에 따라 각종 배상책임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물책임(PL), 환경오염 및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관리의 역할은 보험수요의 증가에 따라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제조물책임위험에 대한 위험관리기법의 꾸준한 개발은 물론, 배상책임분야의 현장조사와 연구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질, 공해 및 토양오염에 관한 환경영향을 분석하며 독가스 및 위험물의 누출에 의한 피해조사 등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영역을 다각화하여야 한다.

(3) 신종 보험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역할확대

행사취소보험, 양식장보험, 컨티전시보험, 인터넷 관련보험 및 금융종합보험 등 기업의 보험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신종보험에 대한 위험관리기법 개발도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4) 기술지원 및 통계분석업무 수요증가

해외 선진국가의 경우처럼 보험회사와 기업의 필

요에 의해 위험관리분야가 세분화되면서 전문화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특히 각종 방재기술자문, 사고사례 정보 제공,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감정평가 업무, 위험분석 프로그램 개발, 통계분석 등의 발달은 위험관리영역을 한층 넓힐 것이다.

다. 위험관리기법의 전문화

국내 보험시장은 방카슈랑스 시행, 가격자유화, 단종보험사 및 대기업의 보험사 진입, 외국보험사의 국내시장 진입,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의 증가, 각종 신종위험의 등장과 관련보험의 개발에 따라 갈수록 보험영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각 보험사는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언더라이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석평가를 통하여 합리적 보험조건의 제시하고, 보험사의 인수 및 보유조건을 결정에 필요한 양질의 언더라이팅 정보가 필요하게 되어 위험관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측면에서의 위험관리업무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위험관리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다.

- 자사 위험의 평가
- 손실발생가능성의 측정 및 대책의 검토
- 손실회피 프로그램의 구축
- 위험보유 등 보험조건의 결정, 보험계약의 관리
- 보험 이외의 위험에 관한 보상의 처리, 데이터의 분석 등

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전문인력의 양성

위에서 거론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전문인

력의 확보 및 양성이 필수적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현장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들이 보험사의 위험관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여 이공계 인력뿐만 아니라 법학, 회계, IT 등의 분야의 전문인력도 총원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손해보험사의 위험관리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한국화재보험협회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과 위험관리 기초이론, 한국산업관리공단 등의 기술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기초교육은 향후에도 일정수준의 인재양성에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내 손해보험업계도 보험산업의 대외개방과 국제화 추진으로 전세계 보험사와 경쟁하게 될 것이며,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위험관리인력의 양성에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위험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교육과정 마련
- 보험사 위험관리직원의 다양한 해외연수 및 교육 지원
- 해외 전문 Surveyor와 공동실사 실시
- 기업 현장근무 경력자를 위험관리 전문가로 채용 및 육성
- 보험사 위험관리조직의 연구기능 강화와 분야별 전문가육성 (예, 반도체공장, 석유화학공장 등)
- 과학적인 측정장비의 활용지원
- 시장의 국제화 및 국제적 교류의 증가에 따른 어학능력 함양
- 보험 및 위험관리분야의 국제 자격증 취득

- 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에 따른 선진 방재기술과 위험관리기법 습득

마. 위험관리의 사회적 역할 강화

보험사업의 사회적 공익성과 더불어 위험관리업무 또한 사회적 봉사기능이 있다. 보험회사의 고객인 기업의 위험관리업무가 활성화되도록 선도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 각종 재해 및 사고의 방지와 손해를 경감시킬 사회적 책임도 있다.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선진화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위험관리 실무에서는 많은 위험관리자들의 참여가 요구될 때가 많다. 각종 안전 및 방재교육, 세미나 또는 출판물과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위험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전반의 안전과 위험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개별적인 노력과 함께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국가적인 제도의 변경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해외의 위험관리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위험관리제도의 발전방향과 손해보험업계의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위험관리업무는 보험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의 모든 보험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장방문을 통한 위험진단은 보험계약과 언더라이팅에 기여하며, 보험계약 후에는 지속적인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한 고객관리라는 보험영업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시 기업과 함께 사고의 원인과 대

책을 연구함으로써 기업의 위험관리 대행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위험관리에 대한 투자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발달하였지만, 크게 보면 우리 사회와 국가의 부를 보호하고, 사회안전에 기여하는 보험제도의 공적 측면도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험관리업무는 고도의 전문 분야로서 오랜 경험과 집중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각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장기적인 안목의 노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Head & Horn, AICPCU, ARM 54 : Essentials of Risk Management, 3rd Edition
2. Head & Horn, AICPCU, ARM 56 : Risk Financing, 1st Edition
3. C. Arthur Williams, Jr. & Richard M. Heins,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1989
4. 김두철 외, 보험과 위험관리, 문영사, 1997
5. 허연, Hard Market하의 손해보험사 위험관리조직의 역할, 대한재보험(주)
6. 보험개발원, 위험관리, 1996
7. Munich Re, Why Risk Management, 2002
8. Munich Re, Casualty Risk Consulting, 2002
9. 지수현, 보험개발원, 배상책임보험론, 1995
10. 신동호, ART를 활용한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방안 연구, 보험개발원, 2003